

## 사민당과 보수당의 정치연설분석: 알메달렌 연설에서 사용한 핵심키워드와 정치담론을 중심으로

최연혁\*

이 글은 알메달렌에서 행한 여야대표의 정치연설의 내용과 그 특징을 기술하고,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단어, 핵심 단어와 연관된 기저구조를 분석해 어떤 소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를 넓히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핵심키워드와 정치담론분석기법을 사용하여 2018년 연설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사민당 마그다레나 안테르손은 복지제도라는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치담론을 구성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강한 사회와 복지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보수당 올프크리스테리손은 사회적 갈등과 폭력은 국가의존적 소외 집단을 양산하는 복지의 그늘이 주 요인으로 복지의 대 개혁 및 이민자들의 언어의무 요구 등 개인책임성을 강조한다. 알메달렌 자료 뿐 아니라 의회토론 및 선거토론 자료 등 보다 넓고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정치연설의 후속적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알메달렌 정치주관, 정치연설, 키워드분석, 통사론분석, 복지국가

\* 린네대학 정치학과

## 1. 서론

정치적 논쟁은 원칙(principles)과 제도(institutions) 간의 관계를 다룬다 (Barry 1990: lxxiii). 정치논쟁의 대표적 형태인 정치연설은 화자가 특정 원칙과 제도를 주장하며 청취자의 이해와 설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중요한 정치적 소통수단이다. 베리는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연설은 어떤 원칙과 제도가 더 적합한지, 혹은 최적인지를 설득하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연설을 통해 화자의 생각과 가치를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지지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연설은 긍정적 지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도 하지만 중립적이거나 소극적 지지 혹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 지도자의 잘 준비된 연설 한 마디가 국민을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나치의 지속적인 공습에 불안에 떨고 있던 영국국민들에게 처칠이 행한 국가방어와 유럽재탈환의 의지를 천명한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연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블로슬라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불안에 떨면서 피난하는 국민들을 향해 ‘수도를 사수하고 있다’는 짧지만 결의에 찬 어조로 행한 연설은 실의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피를 흘려야 하는지 확실한 동기 부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전쟁수행에 엄청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듯 성공적 연설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1회성 연설보다 일정기간동안 행해지는 다수의 정치적 연설은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설을 행한 연사들의 전달능력과 설득력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통해 평가할 수 있고, 그들이 사용한 수사법과 논리, 가치, 그리고 열정은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지지율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 정당당수들의 연설은 정당의 지도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지도자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도자의 성향, 교육, 부모의 영향 등의 요인과 개인 정치경험과 능력

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결과의 성공여부에 대한 미국대통령과 영국 총리연구는 상당한 양의 연구자료가 존재하지만(Rhodes & 't Hart, eds. 2014; Herring 2017; Bell, ed. 2011; Barber 2008; Andeweg et al. 2020) 정치연설의 분석을 통해 정치적 역량과 능력, 그리고 파급효과 및 결과에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정당들이 참여하는 알메달렌정치박람회(Almedalsveckan)은 고틀란드섬의 도심지역인 알메달렌에서 매년 7월 첫 주에 거행되는 정치행사다. 여름 휴가지인 고틀란드섬에서 거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휴가를 즐기면서 다양한 주제의 정치적 이슈를 접하고 정치인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 아고라의 기능을 갖고 있다(최연혁 2018; Östberg 2013). 2019년 50주년을 맞았을 만큼 전통적 정치행사로 자리 잡은 이 행사의 피날레는 저녁 7시에 행해지는 정당대표연설이다. 이 연설은 정당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적 이슈의 제시와 주요 정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정의와 정책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중앙 및 지방언론들이 행사에 참가해 연설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총선이 있는 해에 이루어지는 여당과 야당대표들의 연설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궈진다. 중요한 정치행사로 자리매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당대표들의 연설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 연구를 통해 정당대표연설 연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해 더 많은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 역할을 기대한다.

이 글은 알메달렌에서 행한 여야대표의 정치연설의 내용과 그 특징을 기술하고,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단어, 핵심 단어와 연관된 기저구조를 분석해 어떤 정치적 소통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를 넓히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단 2개의 연설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들의 알메달렌 연설내용을 일반화하기보다는 2018년 총선 이후 좌우 정당들의 시대적 인식과 핵심적 정치적 가치의 지향점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2. 연구대상으로서의 정치연설

정치연설의 연구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수사학(Rhetoric)은 현대정치 연설과 정치인의 말의 기술을 분석할 때 여전히 사용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연설의 세 가지 요소, 즉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 연설을 분석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Aristotle 2007). 에토스는 화자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지식과 윤리, 덕, 혹은 선의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로고스는 화자가 그 이야기의 핵심가치를 떠받쳐 주는 논리적 구성을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파토스는 청중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정서와 열정의 도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입장으로 볼 때 화자가 이 핵심요소들을 어떻게 잘 담아내어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가지 요소는 여전히 중요한 분석의 틀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정치연설 연구에는 이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분석기법들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시도 중의 하나로 연설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하기도 한다. 연설에 참여하는 화자(speaker)가 메시지(message)를 듣는 청중들(receiver)에게 어떤 몸짓과 화법을 통한 상징성(rhetoric style and skills)을 전달하는지를 해석자(interpreter)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다섯 가지의 요소를 제시한 보레우스와 베리스트랩(Boréus & Bergström 2018)은 이 4가지의 중심 요소에 연설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결정짓는 맥락(context)을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로 제시한다. 맥락은 연설이 갖고 있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연설자의 연설과 연관성이 있는 모든 행위자와 구성요소를 모두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구성요소 하나 하나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소별로 적용되는 연구방법과 분석기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Boréus & Bergström 2018).

화자를 연구의 초점으로 할 때 화자가 주장하는 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증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논증법을 중심으로 정치적 논쟁을 연구한 툴민(Stefan Toulmin)의 분석모델은 주장한 내용(statement)에 부합되는 자료(data

or ground), 주장의 이론적 근거(warrant), 이를 뒷바침하는 추가자료(backing), 그리고 개연성의 정도(modality), 그리고 예외적 요소(rebutal)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Toulmin 2012). 또한 어떤 수사적 표현을 구사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핵심질문(question), 유추(analogy), 비유(simile), 은유(metaphor), 평행적 대치(parallel), 반복(repeat), 암시(allusion), 일화(anecdote) 등의 수사기법을 파악하기도 한다(Baldrick 2008; Corbett & Commors 1999; Forsytn 2014; Kennedy 2006). 각각 다른 대상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연구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방향과 내용의 선정,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이유다.<sup>1)</sup>

<표 1> 정치연설의 5가지 중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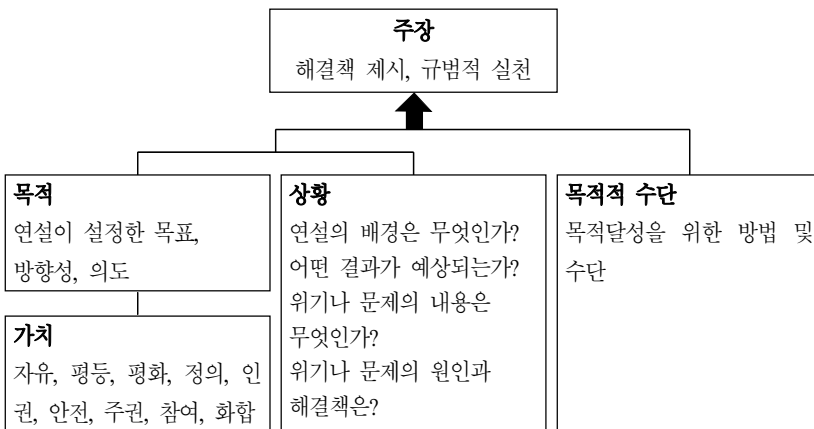
연구대상	연구초점	연구내용	연구방법
화자 (speaker)	화자는 누구인가? 어떤 연설기술과 기법을 사용해 설득하는가?	연설의 기술, 화법, 제스처, 표정 등	논증법(예, 톨민모델) 수사법
메시지 (message)	어떤 내용인가? 어떤 가치나 정책비전 혹은 개혁을 원하는가?	비전, 가치, 정책 등	내용분석(예, QCA모델)
청중 (receiver)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일반 유권자, 당원, 정치의식수준, 사회적 위치, 미디어 소비자	현장청중분석(예, Exit Poll), 인터뷰분석(즉석 서베이), 유권자분석(서베이), 미디어분석(QCA분석)
맥락 (context)	연설의 배경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문제의 인식, 목적, 의미, 파급효과	사전 및 사후 인터뷰, 미디어 분석, 프레임분석, 프라임분석
해석자 (interpreter)	제3자적 시각? 취재자, 혹은 연구자의 목적, 배경, 방향성	기자의 선입견, 편견, 사전지식, 사상적 방향성	연구자의 연구분석, 미디어분석

출처: Boréus & Bergström (2018)의 5대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은 저자가 재 구성함.

1) 메시지, 청중, 맥락, 해석자 중심의 연구방법과 접근법 등에 대해서는 표1을 참조할 것. 여기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론과 접근법에 대한 것은 생략함.

정치연설 분석기법중의 또 다른 하나로 담론분석기법(discourse analysis)을 들 수 있다. 페어클로와 페어클로(Fairclough & Fairclough 2012)는 정치담론 분석(Pol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정치적 주장이나 연설을 연구한다. 이 분석기법은 목적과 가치(goals and values), 목적과 수단(goals and means), 상황(circumstances) 그리고 핵심적 주장과 요구(statement or appeal) 등을 해부적 방법으로 분석해 연설을 재구성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 기법은 연설과 연관된 5대 구성요소에 대한 관심보다는 화자가 만든 스토리의 결과물인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연설이나 토론의 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보레우스와 베리스트렘이 지적인 맥락적 분석과 유사하다. 문제의 주변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원인이 발생하는 배경과 관련된 행위자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과 자원이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설득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중심 가치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을 택한다(Fairclough & Fairclough 2012).

<그림 1> 정치담론분석틀



출처: Fairclough & Fairclough (2012)

스웨덴 정당 대표들의 연설을 연구한 에릭 오사드(Erik Åsard)는 정당대표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사상적 방향성, 수사기법 등이 한 나라의 정치적 수준과 문화, 그리고 국민의 정치언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사드의 연구는 정치적 수사와 사상적 뉘앙스와 가치를 내포한 단어에 초점을 둔 질적 내용분석방법(qualitative content analysis)으로 서술을 통해 정치연설을 이해하고자 한다. 정치인들 중에서 정당대표들의 연설이나 정치토론, 혹은 인터뷰 등의 자료는 한 나라의 정당정치의 사상적 기초, 논의의 설득적 근거, 그리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정책적 이슈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지금까지 정치학자들이 이 분야의 연구에 소홀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당대표들의 정치적 논쟁이나 연설에서 구사하는 수사적 기법을 동원한 설득방법은 한 국가의 정치적 정서와 수준을 내포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고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정치적 지지의 방향성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Bennett & Åsard 1995; Åsard 2012).

정치연설을 중심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색다른 연구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채터리스-블랙(Chateris-Black 2012)은 비교핵심키워드 연구를 통해 지도자들의 설득능력을 분석하는 연구를 선보였다. 설득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즉 이야기의 구성(story, plot), 논리적 설득근거(logos), 정서적 호소(pathos), 그리고 이성적 혹은 윤리적 요소(ethos)를 들며 이 4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연설과 담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청중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요소를 바탕으로 화자가 주로 사용하는 핵심단어의 빈도, 그리고 단어 들 간의 연관성들을 분석해 연설의 핵심을 이해하고자 한다. 정치연설의 중심키워드는 앞에서 언급한 페어클로-페어클로의 정치담론분석 기법과 보레우스와 베리스트렘의 5대 요소 중 메시지라는 말과 텍스트를 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핵심키워드들간의 관계를 규명해 사상적 뿌리와 방향성을 규명한다는 점에서는 기호학적 연구방법(semiotic research)의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 3. 분석틀 및 자료

연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화자의 메시지, 즉 연설자의 말과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알메달렌 정치행사기간 중 행한 연설문을 두 가지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채터리스-블랙의 키워드 분석법을 적용해 키워드의 구조와 관계성을 규명해 사상적 방향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스웨덴 여야 당대표의 연설들은 스웨덴의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사상적 설득구조를 파악해 보는 적절한 자료라 여겨진다. 둘째, 페어클로-페어클로의 정치담론분석틀을 이용하여 연설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인식과 해결에 대한 접근법을 상황, 목적, 가치, 수단으로 구분해 두개의 연설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설문이 갖는 다양한 정치적 의미와 의도, 그리고 사회문제에의 인식방식과 해결책 제시에 대한 기본시각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최근 2년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알메달렌 행사가 현장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스웨덴 의회에서 원격화상연설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9년 현장에서 행한 연설문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8년 선거의 결과 녹색당과 함께 소수연립내각을 어렵게 구성해 정부를 이끌어 오던 사민당의 마그다레나 안테르손(Magdalena Andersson) 재무부 장관의 연설과 최대야당인 보수당의 울프 크리테르손(Ulf Kristersson) 당대표 연설문을 비교한다. 스테판 뢰브벤(Stefan Löfven) 당시 사민당 당수이자 총리였던 본인 대신 재무장관에게 대표연설을 인계했기 때문에 두 연설문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설을 진행한 안테르손은 뢰브벤총리가 사임한 2021년 11월 이후 총리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차기총리와 야당대표의 연설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 3.1 키워드분석

마그다레나 안테르손의 연설은 총 305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설시간은 45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현직 재무장관으로 사민당을 대표해 연설한 안테르손은 사민당의 중요한 정책목표와 가치, 그리고 핵심정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2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안데르손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복지(välfärd/välfärden)로 15회를 언급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여성(10), 노동(10), 일자리(8), 사회(8), 엄마(7), 세금(7)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복지정책 대상인 엄마(7), 아동(5), 청소년(4) 등이 높은 빈도수로 언급되어 있고, 추구하는 정책인 일자리창출, 복지, 세금, 노동, 임금, 노동시장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사민당이 정강정책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권리, 평등, 정의, 성평등, 페미니즘, 자유 등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 키워드 빈도: 마그다 레나 안데르손(2019 알메달렌 연설)

Word	Count	Weighted Percentage (%)	Similar Words
Kvinnors	10	0,58	kvinnor, kvinnors
Rätt	10	0,58	rätt
Arbete	9	0,52	arbete
Välfärd	9	0,52	välfärd
Jobb	8	0,46	jobb
Samhälle	8	0,46	samhälle
Mamma	7	0,40	mamma
Skatt	7	0,40	skatt
socialdemokrater	6	0,35	socialdemokrater
Välfärden	6	0,35	välfärden
Barn	5	0,29	barn
Kampen	5	0,29	kampen
Modellen	5	0,29	modellen
Pengar	5	0,29	pengar
Rättvisa	5	0,29	rättvisa
Jämlikhet	4	0,23	jämlikhet
Lön	4	0,23	lön
Män	4	0,23	män
socialdemokratiska	4	0,23	socialdemokratiska
Ungdomar	4	0,23	ungdomar

Word	Count	Weighted Percentage (%)	Similar Words
Vägen	4	0,23	vägen
Världens	4	0,23	världen, världens
Abort	3	0,17	abort
Almedalen	3	0,17	almedalen, almedalens
Arbeta	3	0,17	arbete
arbetsmarknaden	3	0,17	arbetsmarknaden
Bestämna	3	0,17	bestämna
Feminism	3	0,17	feminism
Folket	3	0,17	folket
Friheten	3	0,17	friheten

설명: 총 3050개의 단어로 구성된 연설은 45분동안 지속되었다. NVIVO를 사용한 키워드 분석에는 명사와 동사만을 추출해 사용했고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 30개를 나열했다.

마그다레나 안데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두 키워드의 조합인 '스웨덴 모델(svenska modellen)'의 통사론(syntax)적 구조를 살펴보면 연설의 사상적 방향성과 가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형용사 형태의 키워드 '스웨덴(svensk)'과 모델(modellen)을 결합하여 연결된 통사론적 구조를 살펴보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a), 스웨덴 모델에 대한 자부심(b)를 엿볼 수 있고, 모든 아동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모델이고 (c),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d). 시민당이 1950년대 이후 사용하고 있는 레토릭이 2019년 연설에서도 그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 모델은 성공적 정치경제모델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의 핵심적 프레임으로 뿌리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시민당 마그다레나 안데르손의 키워드 '스웨덴 모델'에 대한 통사론적 구조(syntax)



보수당이 행한 연설은 큰 대조를 이룬다. 크리스테르손의 키워드를 빈도수로 분석해 보면 연설의 구성이 사민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수당의 키워드는 스웨덴의 직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명사와 형용사 형태의 ‘스웨덴’(sverige, svenska, svensk, svenskt) 키워드 사용빈도는 전체 단어 중 5.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사회문제(problem) 8회, 개혁을 위한 요구(krav) 7회, 이민자들의 언어능력(språket) 부족 6회, 이민자(invandrare) 4회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키워드들은 스웨덴 모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skola) 5회, 교사(lärare) 5회, 통합(integration) 5회, 공동체(gemenskap) 4회, 조화(sammanhållning) 4회 등의 빈도수를 가진 키워드들은 보수당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과 정책적 목표를 위해 동원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 키워드 빈도: 올프 크리스테르손(2019 알메달렌 연설)

	Count	Weighted Percentage (%)	Similar Words
Sverige	47	2,53	sverige, sveriges
Svenska	39	2,10	svenska
Modellen	16	0,86	modellen
Svensk	11	0,59	svensk
Barn	10	0,54	barn
Kvinnor	10	0,54	kvinnor
Problem	8	0,43	problem
Världen	8	0,43	världen, världens
Krav	7	0,38	krav
Män	7	0,38	män
Värderingar	7	0,38	värderingar
Moderaterna	7	0,38	moderaterna, moderaternas
Pappa	6	0,32	pappa, pappas
Samhället	6	0,32	samhället
Språket	6	0,32	språket

	Count	Weighted Percentage (%)	Similar Words
Integration	5	0,27	integration
Lärare	5	0,27	lärare
Rättigheter	5	0,27	rättigheter
Skolan	5	0,27	skolan
Svenskt	5	0,27	Svenskt
Unga	5	0,27	Unga
Familj	4	0,22	familj, familjer
Gemenskap	4	0,22	Gemenskap
Invandring	4	0,22	Invandring
Kina	4	0,22	kina, kinas
Människor	4	0,22	Människor
Politiska	4	0,22	Politiska
Rätt	4	0,22	Rätt
sammanhållningen	4	0,22	Sammanhållningen
Arbete	3	0,16	Arb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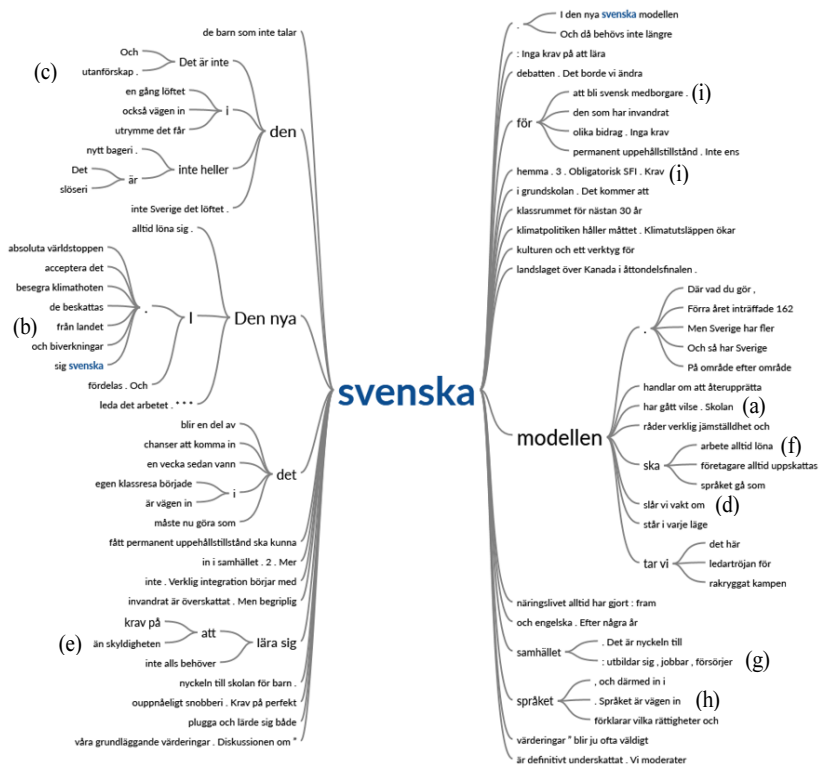
설명: 총 3689개의 단어로 구성된 연설은 55분동안 지속되었다. NVIVO를 사용한 키워드 분석에는 형용사 키워드 ‘스웨덴의(svenska, svensk, svenskt)’와 정치적(politiska)만을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명사만을 추출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 30개를 나열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급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들은 복지국가 혹은 스웨덴 모델에 내포된 부정적 뉘앙스를 표출하고 있다. 키워드 ‘스웨덴’과 ‘모델’을 결합한 스웨덴 모델(svenska modellen)은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지만 시민당과 달리 스웨덴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와 연관지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리스테르손이 인식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을 통사론 구조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크리스테르손의 연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스웨덴의 심각한 문제점은 스웨덴모델과 복지, 이민자와 연관되어 제시된다. 스웨덴 모델은 길을 잃고 있음 (a), 스웨덴 모델의 부작용이 심각함 (b), 스웨덴 모델을 감시할 필요가 있음 (d), 스웨덴어를 이민자들은 학습할 의무가 있음 (e), 복지제도는 개혁할 필요

가 있음 (f), 교육, 노동,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 (g), 이민자들의 언어습득은 사회진출의 열쇠 (h), 시민권획득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스웨덴어 자격증 의무화와 언어과정 필수 요구 (i) 등 문제점과 그 해결책의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보수당 연설의 핵심은 복지국가모델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문제의 핵심에는 스웨덴 복지에 의존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언어능력미숙,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한계, 교육 및 노동제도의 개혁 등을 지적하면서 사민당이 주도하고 있는 복지국가 프레임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를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보수당 울프 크리스테르손의 키워드  
'스웨덴 모델'에 대한 통사론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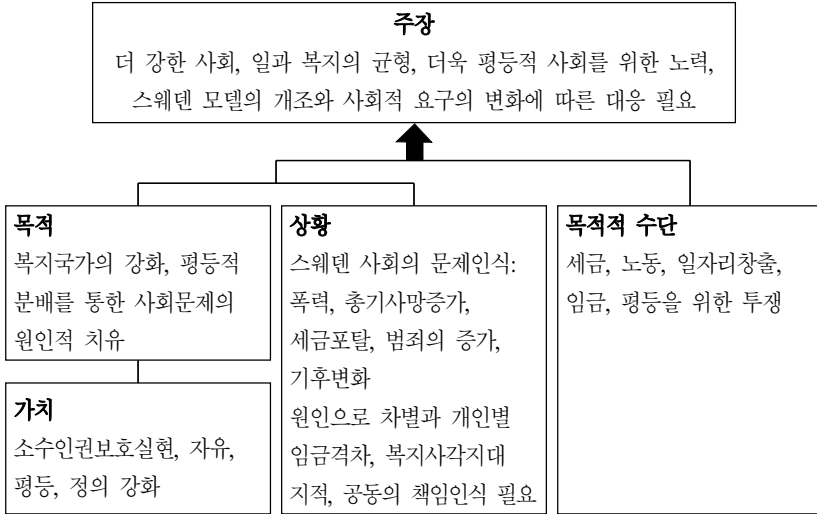
### 3.2 정치담론분석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담론분석은 연설의 배경과 목적, 사용되는 가치와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Fairclough & Fairclough 2012). 안데르손의 연설을 위의 다섯 가지 요소로 분석하기 위해 몇개의 핵심 단어를 선택해 통사론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통사론적 분석은 정관사 형태까지 포함한 ‘복지’와 ‘사회’, ‘노동’, ‘세금’, ‘투쟁’, ‘문제’ 등의 키워드와 연결된 과편화된 생각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안데르손의 상황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는 폭력, 총기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세금포탈,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인식은 보수당과 크게 다르다. 개인간 차별로 인한 더욱 커진 임금격차,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해 양산된 사회적 약자의 상당수가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인식의 기반 위에 있다. 결국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의 기반 위에 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정의, 그리고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 국가를 더욱 강화하고 평등한 분배 정책으로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시민당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로 서술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일자리창출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통해 노동임금으로 살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평등을 위한 투쟁이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된다. 이를 바탕으로 안데르손 연설은 더 강한 사회, 일과 복지 간의 균형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모델을 새롭게 개조하고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적 담론과 주장으로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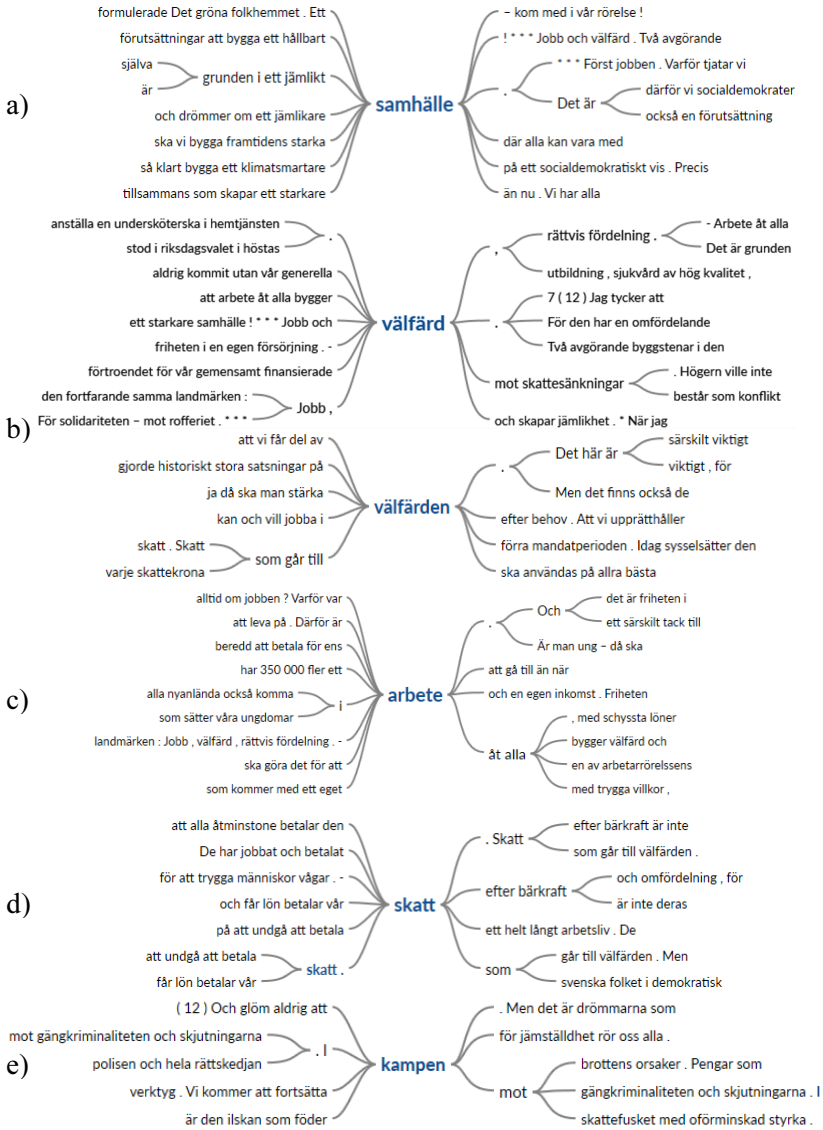
<그림 4> 사민당 마그다레나 안데르손의 정치담론



다음으로 보수당 대표 크리스테르손의 정치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중심가치체계’, ‘사회적 문제’, ‘요구’, ‘통합’, ‘사회’, ‘권리’ 등의 중심 키워드를 통사론적 분석을 해 보았다. 크리스테르손이 바라보는 정치환경 속 사회문제의 인식과 해결책 제시, 목적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수단과 문제해결 접근법, 그리고 핵심적 주장은 사민당 안데르손의 연설에서 나타난 것과 명료한 대조를 이룬다. 높은 범죄, 실업, 소외 등의 문제는 사민당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복지모델의 사회통합의 실패의 결과로 지목된다. 스웨덴 모델의 부작용으로 의존적 소외계급의 양산과 국가에 대한 지나치 기대와 무임승차, 보조금의 과대한 의존은 나약한 시민을 만들어 자신의 실패를 지식층과 사회 부유층에게 돌리며 자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의 소외세력 중 이민자들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스웨덴어 습득의 실패와 사회적응의 실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스웨덴어를 배우게 해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스웨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체계는 학교교

<그림 5> 대표 키워드 통사론 분석: 사민당 안데르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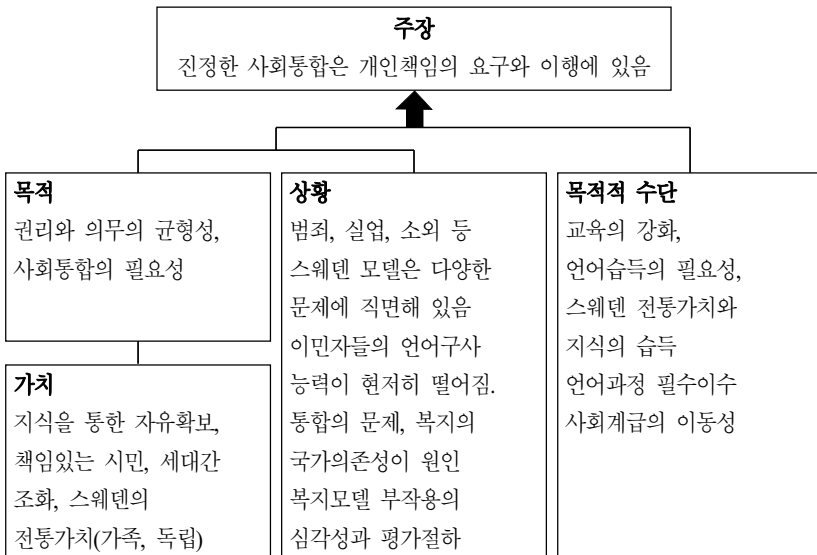


설명: 정치담론분석을 위해 다음 키워드의 통사론적 분석을 시도했다. a) Samhälle(사회), b) välfärd/välfärden(복지), c) arbete(노동), d) skatt(세금), e) kampen(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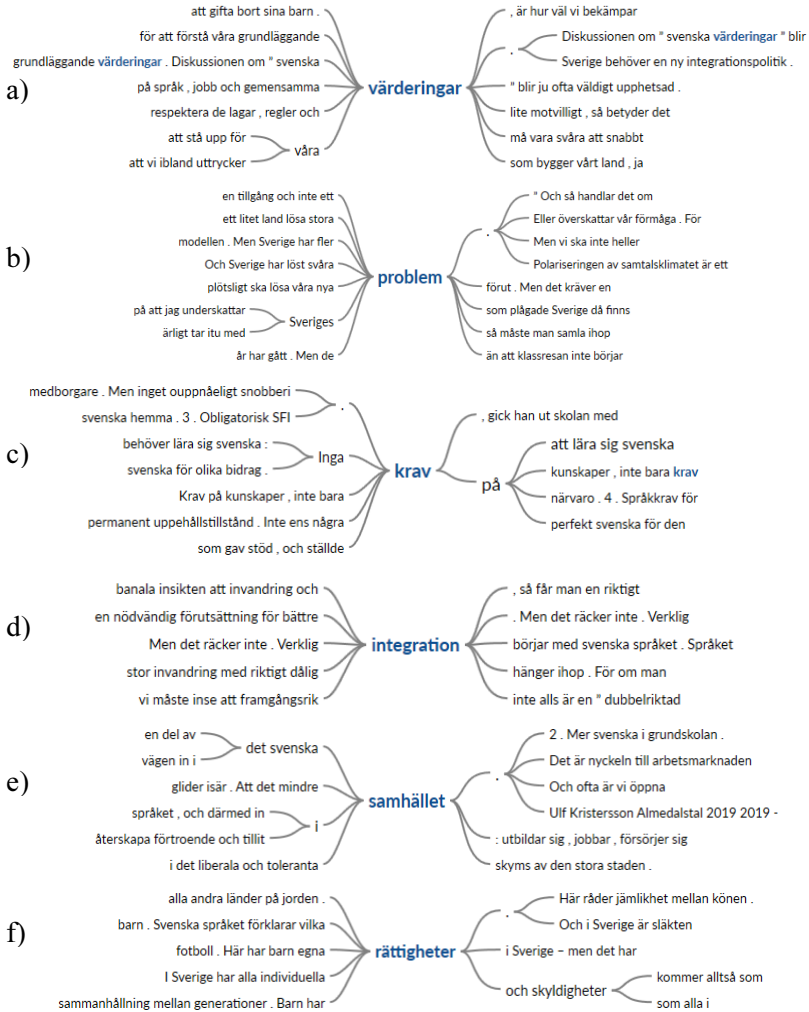
육을 통한 개인의 지식획득을 통한 자신의 진정한 자유확보와 책임있는 시민 의식 함양이라고 지적한다. 국가정책의 목적은 결국 권리와 의무가 균형적으로 작동되는 사회적 시스템과 정책적 대응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식습득, 노동참여, 세금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시민적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적 수단으로 개인책임의 강화하는 교육, 언어능력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학교개혁, 개인책임을 강조한 지식교육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이 의무적으로 언어능력평가시험을 통과해야 자신의 노동시장진출이 이루어지고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계급이동성은 개인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크리스테르손의 연설은 결국 진정한 사회통합은 국가보조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책임의 극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담론이 그 핵심을 이룬다.

<그림 6> 보수당 울프 크리스테르손의 정치담론



<그림 7> 대표 키워드 통사론 분석: 보수당 크리스테르손



설명: 정치담론분석을 위해 사용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a) värdering(중심가치체계), b) 사회적 문제(problem), c) krav(요구), d) 통합(integration), e) samhälle(사회), f) rättigheter(권리)

## 4. 결론

연설은 중요한 정치행위로 설득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갖는다. 연설은 선거 시에는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기능도 갖지만 국가적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이 글은 스웨덴의 중요한 정치행사로 자리잡고 있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소통기능을 갖는 여야당대표연설문을 비교분석해 스웨덴 정당정치에 심도있는 이해와 소통양식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야대표의 2019년 연설을 비교한 이 연구는 키워드와 정치담론분석방법을 분석틀로 사용해 분석해 보았다. 키워드분석은 이들이 연설에서 사용한 핵심 단어들의 구성을 통해 사상적 방향성과 추구하는 가치를 기술하는데 유용하지만 키워드 상호간의 구성은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 정치담론분석기법은 키워드 상호간의 관계를 통사론적 방법으로 생각의 조각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해 문제인식, 연설의 목적, 중심가치 등 설득과 주장의 논리를 이해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사민당과 보수당의 사회문제의 상황적 인식과 해결 방식, 그리고 접근법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시켜 준다. 핵심 키워드분석에서는 사민당과 보수당이 공통적으로 복지국가와 복지모델이라는 단어를 핵심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으나, 뉘앙스와 그 내용은 큰 차이를 보여준다. 사민당은 여성, 권리, 노동, 평등, 일자리, 사회, 엄마, 복지, 아동, 투쟁, 복지모델, 정의, 평등의 단어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면서 사민당이 추구하는 사상과 가치, 그리고 복지국가의 대상에 연설이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수당은 스웨덴(Sverige), 스웨덴의(svensk, svenska), 모델, 아동, 여성, 문제, 중심가치체계 등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 스웨덴이 안고 있는 문제와 모델의 한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웨덴 모델’의 개념을 가지고 단일 단어 통사론 분석을 해본 결과 사민당은 스웨덴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린 모델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책지향성을 엿볼 수 있었고, 보수당의 경우 노

동참여를 통한 세금납부라는 국민적 책무보다는 무상복지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복지제도의 팽창으로 국가의존형 국민의 양산, 범죄의 증가, 지식습득과 이민자 언어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복지제도는 이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통사론적으로 분석한 정치담론분석기법은 이 같은 논의의 핵심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두 정당 대표들의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상황인식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과 정책목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시민당은 개인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더욱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당은 교육의 강화를 통해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증진시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적극적 시민을 배출해 내는 것이 중요한 국가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두 가지 분석 기법을 사용해 두 정당의 연설내용에 대한 차이점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2개의 연설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석기법들을 이용해 상당한 자료가 축적된 역대 알메달렌연설을 시대적 주장의 논거와 각 당의 정책노선 변화 등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알메달렌 연설이 196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축적된 50년 이상의 자료는 스웨덴 정당정치에 흐름과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정부질문, 정당간 의회 정책토론, 정책 메니페스트, 선거토론 등 다양한 정치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느 연설과 정책내용이 더욱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지, 누가 토론에서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는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분석기법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수사학적 분석, 논리, 이성, 대의 분석, 교감과 소통, 청중분석 및 해석자 분석 등을 결합한 포괄적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최연혁(2018).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복지저널리즘.

- Adler, P. B. (2012). *Churchill i talarstolen : ett retoriskt porträtt*. Carlsson.
- Andeweg, R. B., Elgie, R., Helms, L., Kaarbo, J., & Müller-Rommel, F. (Eds.). (2020).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Execu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ristotle, & Kennedy, G. A. (2006).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New York an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ristotle. (2007). *The Art of Rhetoric*. London: Penguin Books.
- Åsard, E. (2018). *Politik och retorik*. Historiska media.
- Aubuchon, N. (1997). *The Anatomy of Persuasion*. New York: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 Baldrick, C. (2008). *Oxford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Barber, J. D. (1976). *The Presidential Character*. London: Pearson.
- Barry, B. (1990). *Political Argument. A reissue with a new introduc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California University Press.
- Bell, D. S. (Ed.). (2011). *Political Leadership*. London: Sage.
- Bennett, W. L., & Åsard, E. (1995). The marketplace of Ideas: The rhetoric and politics of tax reform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Polity*. Vol. 28, No. 1 (Autumn, 1995), pp. 1-23.
- Booth, W. C. (2006). *The Rhetoric of Rhetoric. The quest for effective communication*.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Brophy, P. (2009). *Narrative-based Practice*. Surrey: Ashgate.
- Cockcroft, R., & Cockcroft, S. (2005). *Persuading People. An introduction to rhetoric*. 2nd edi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Corbett, E. P. J., & Connors, R. J. (1999). *Style and Statement*. Oxford

- University Press. New York, Oxford.
- Denton Jr, R. E. (Ed.). (2012). *The George W. Bush presidency: A rhetorical perspective*. Lexington Books.
- Fairclough, I., & Fairclough, N. (2012).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A method for advanced studen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isher, F., & Gottweis, H. (2012). *The Argumentive Turn Revisited. Public policy as communicative practice*.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Forsyth, M. (2014). *The Elements of Eloquence*. Berkley Publishing Group/ Penguin Publishing. New York
- Helms, L. (Ed.). (2012). *Comparative Political Leadership*. London: Palgrave Macmillan.
- Herring, P. (2017). *Presidential Leadership*. London: Routledge.
- Kennedy, X. J., Gioia, D., & Bauerlein, M. (2006). *The Longman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Vocabulary for the informed reader*. New York: Pearson/ Longman.
- Rhodes, R. A. W., & Hart, P. T. (Eds.). (2014).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leadership*. Oxford University Press.
- Östberg, K. (Ed.). (2013). *Almedalen. Så skapades en politikens marknadsplats*. Huddinge: Samtidspolitiska institutet.
- Toulmin, S. (2021). *The Uses of Argument*. Hassel Street Press.
- Van Eemeren, F. H., Grootendorst, R., Henkemans, F. S., et al., (1996). *Fundamentals of Argumentation Theory. A handbook of historical backgrounds and contemporary development*.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m Association, Publishers.

<Abstract>

## **Understanding Political Addresses of the Social Democratic and Moderate Party:**

Keywords and Political Discourses Used in the Almedal Week

Choi, Yeonhyuck

The annual event of ‘Almedalsveckan’ – ‘The Almedal Week’ held at the first week of July on Gotland in Sweden where every political party has attended has been existing since 1968. The political event for a variety of seminars, meetings, and garden talks has become a symbol for Swedish deliberative ‘Agora’ democracy. In spite of its history with accumulated data of speeches, debates and addresses, no single research analyzing addresses of party leaders has existed so far except for descriptive statistical studies of the event and participants. This article aims at filling this gap. Evening addresses given by two main party leaders representing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Moderate Party were compared in this article. Two analytical tools, i.e. keyword analysis, on the one hand, and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on the other were adapted to explore the contents, symbols, ideas and arguments. This research based on semiotic exploration of core keywords detects that clear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addresses of the two largest political parties have emerged in terms of perceptions of social issues, ideological stances, value orientation, policy goals and arguing claims on the prospective role and image of welfare state. More in-depth and broader interest in empirical studies of political address is argued to be of greater importanc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persuasive skills, consequences of the addresses and influence on political changes.

**Key Words:** Almedalsveckan, The Almedal Week, political address, keyword analysis,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welfare state

---

성명: 최연혁 (Choi, Yeonhyuck)  
소속: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학과  
E-mail: yonhyok.choe@lnu.se

논문 접수일: 2022.06.04.                      논문심사 완료일: 2022.06.22.  
수정원고 접수일: 2022.06.29.              게재 확정일: 2022.06.29.